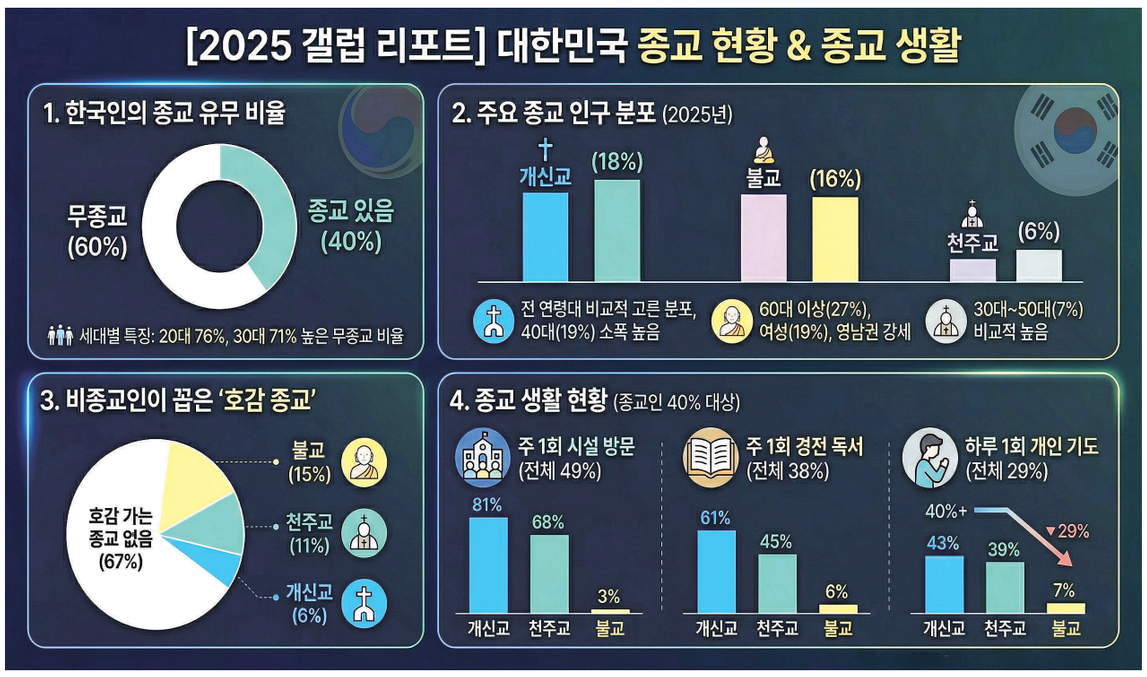
“가정·일상 수행프로그램 보급을”

1면에서 이어짐

‘호감도’는 불교가 가장 높아
‘좋은 종교’지만 필요無 인식
기도·수행, 가정서 가능해야
조계종, 재가 포살법회 추진



해당 인포그래픽은 생성형 AI를 통해 제작했습니다.

해인사 전 교수사 여운 스님은 “호감도가 높지만 참여율이 매우 낮은 역설적인 조사 결과는 불교가 긍정적인 이미지와 철학적 매력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개인의 삶 속 실천으로 충분히 연결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면서 “불교는 ‘좋은 종교’로는 인식되지만 정각 ‘필요한 종교’로는 작동하지 못하는 구조적 한계를 드러내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스님은 앞으로의 불교는 교리를 설득하는 종교가 아니라, 경험을 제공하는 수행으로 다시 자리매김해야 함을 분명히 했다. 이에 여운 스님은 “사람들은 더 이상 종교 공간을 일상적으로 찾아가려 하지 않는다. 대신 일상 속에서 적용 가능한 실천을 원한다”며 “좌선이나 법문을 사찰 안에만 머물게 할 것이 아니라, 감정과 관계, 노동과 갈등의 현장에서 작동하는 수행으로 재구성해야 한다. 불교는 ‘찾아가는 종교’가 아니라 ‘살아지는 수행’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응철 중앙승가대 교수는 일상 속으로 신행과 수행을 가져오기 위한 가정법회 활성화를 주장하며 ‘불감(佛龕)’ 가정 보급 운동을 제언했다.

김 교수는 “불자 중에는 신행과 기도를 사찰에서 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초하루 법회 정도만 참석하는데 1년이라 해도 12번 정도 사찰에 가는 것”이라면서 “일상 속 신행이 실천되기 위해서는 가정법회가 활성화돼야 한다. 불감을 가정마다 보급해 매일 반야심경, 금강경 등을 독송하는 신행문화를 만든다면 불자들의 신행 밀도가 높아질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와 함께 조계종 포교부는 재가 불자 신행 활성화를 위해 재가자 포살법회 등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지난 3월 31일부터 4월 1일까지 진행된 조계종 중앙종회 제237회 임시회의 종책질의에서 중앙종회의원 대진 스님은 “최근 갤럽 조사에서 불자들의 신행 참여도가 낮은 것으로 확인됐다”며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에 포교부장 정무 스님은 “수행공동체라는 방향은 변함없다”며 “올해 재가자를 대상으로 결계포살 등 수행 중심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신도 5대 수행 지침을 통해 신행 활성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재가자 포살법회’는 조계종연구소가 지난해 처음 시행한 ‘종책제안서 공모전’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한 향림 스님(봉녕사)의 ‘재가자 포살 실행 프로그램’에서 아이디어를 차용한 것으로 일상생활 속에서 계율과 참회를 실천하는 수행 프로그램으로 자리매김하겠다는 게 기획 목표다.

재가자 포살법회는 교구본사 등에서 우선 시범 운영되며, 하안거와 동안거 기간 보름이나 지정일에 걸쳐 연 2회 시행된다. 포살법회에서는 팔재계 계문 합송과 계율을 점검하는 재가자 포살본 독송과 108참회, 5분 선명상, 자애경 등 독송 등이 이뤄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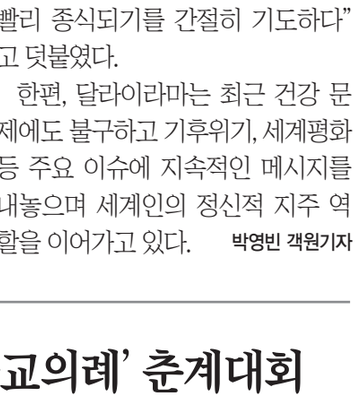
포교부는 3월 중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마련하고 재가자 포살본 및 108참회문 등 프로그램을 개발을 진행해 올해 동안거부터 포살법회를 시범 운영할 계획이다.

신중일 · 하성미 · 김내영 기자

해외불교는 지금

달라이라마, 교황 평화 메시지에 지지 표명

3월 31일 공식 성명 발표
중동 · 우크라이나 평화 촉구


THE DALAI LAMA

MESSAGE

I wholeheartedly endorse the powerful appeal for peace made by the Holy Father, Pope Leo, during his Palm Sunday Mass. His call for the laying down of arms and the renunciation of violence resonated profoundly with me, as it speaks to the very essence of what all major religions teach.

Indeed, whether we look to Christianity, Buddhism, Islam, Hinduism, Judaism or any of the world's great spiritual traditions, the message is fundamentally the same: love, compassion, tolerance, and self-discipline. Violence finds no true home in any of these teachings. History has shown us time and again that violence only begets more violence and is never a lasting foundation for peace.

An enduring resolution to conflict, including the ones we see in the Middle East or between Russia and Ukraine, must be rooted in dialogue, diplomacy and mutual respect — approached with the understanding that, at the deepest level, we are all brothers and sisters.

I urge for and pray that the violence and conflicts may soon come to an end.

31 March 2026

달라이라마가 공식 발표한 평화메시지.
사진 출처=달라이라마 공식사무국

세계 곳곳에서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티베트불교의 지도자 달라이라마가 중동과 우크라이나에서 벌어지는 무력 충돌의 즉각적인 중단과 평화적 해결을 촉구했다. 지난 4월 1일 해외불교 전문매체인 ‘부디스트도어 글로벌’ 등의 외신들은 달라이라마의 성명을 보도했다.

3월 31일 발표된 공식성명에서 달라이라마는 “역사는 폭력이 오직 또 다른 폭력을 낳을 뿐이며, 결코 평화의 지속적인 토대가 될 수 없음을 보여 준다”고 강조했다. 이어 “중동이나 러시아-우크라이나의 분쟁을 포함한 모든 갈등의 지속 가능한 해결책은 반드시 대화와 외교, 그리고 상호 존중에 근간을 둬야 한다”고 주문했다.

특히 이번 성명은 교황 레오 14세가 ‘주님 수난 성지 주일’ 강론에서 전쟁의 부당함을 지적한 직후 발표돼, 종교 간 화합과 평화의 메시지로 주목받고 있다. 당시 교황은 “전쟁을 거부하시는 하느님이시고, 그 누구도 전쟁을 정당화하기 위해 이용할 수 없는 하느님이시며, 전쟁을 일으키는 자들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고 그 기도를 물리치신다”며 전쟁과 폭력을 강력 비판했다.

이에 대해 달라이라마는 “레오 교황의 강력한 평화 메시지에 전적으로 동의하며, 교황의 호소는 모든 주요 종교의 핵심 가르침”이라고 화답했다. 이어 “불교, 그리스도교, 이슬람교, 힌두교 등 모든 영성 전통의 근본적인 메시지는 사랑과 자비, 관용, 그리고 자신을 절제함”이라며 종교적 명분이 폭력의 도구로 전락하는 현실을 경계했다.

달라이라마는 “우리는 가장 깊은 본질의 차원에서는 모두가 형제자매임을 알고 상호존중을 바탕으로 대화해야 한다”며 “폭력과 분쟁이 하루빨리 종식되기를 간절히 기도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달라이라마는 최근 건강 문제에도 불구하고 기후위기, 세계평화 등 주요 이슈에 지속적인 메시지를 내놓으며 세계인의 정신적 지주 역할을 이어가고 있다. 박영빈 객원기자

제1회 법정 스님 학술상 논문 공모

접수는 7월 20일~8월 23일
수상자 11월 세미나서 발표
“법정 스님 사상, 학문으로”

사단법인 맑고 향기롭게(이사장 덕조 스님)가 법정 스님의 삶과 사상을 학문적으로 조명하고 그 가르침을 오늘의 시대 속에서 새롭게 성찰하기 위해 ‘제1회 법정 스님 학술상’ 논문 공모를 실시한다.

‘법정 스님 학술상’은 무소유와 청정의 삶을 몸소 실천한 법정 스님의 사상을 학문적으로 계승하고 한국 불교사상의 현대적 의미를 넓혀가기 위해 올해 처음 제정됐다. 아울러 스님의 삶과 가르침을 깊이 있게 탐구하는 연구자를 발굴·지원하고 수행과 사유가 함께하는 학문적 전통을 이어가고자 마련됐다.

주제는 ‘법정 스님의 삶과 사상에 관한 자유 주제’이며 스님의 가르침에 관심 있는 석사과정 이상 연구자(대학 전임교원 제외)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7월 20일부터 8월 23일까지 대표이메일(clean94@hanmail.net)로 접수하면 된다. 수상자는 9월 28일 이후 개별 통보한다. 대상 1명 500만원, 최우수상 1명 300만원, 우수상 1명 200만원이 수여된다.

시상식은 2026년 11월 8일 길상사 설법전에서 열리는 ‘제2회 법정 스님 학술세미나’에서 진행되며 수상자는 논문을 발표하게 된다. 수상 논문은 〈세계불교학연구〉 특집으로 게재될 예정이다.

사단법인 맑고 향기롭게 이사장 덕조 스님은 “법정 스님의 삶과 사상은 물질 중심 사회 속에서 인간과 사회의 방향을 성찰하게 하는 중요한 정신적 자산”이라며 “이번 학술상이 법정 스님의 가르침을 학문적으로 계승하고 한국 불교 사상 연구의 새로운 지평을 여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처음 개최되는 학술상을 통해 무소유 사상을 비롯한 다양한 연구가 더욱 활발해지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논문 접수 및 자세한 사항은 맑고 향기롭게 홈페이지(www.clean94.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02-741-4696

임은호 기자

불교문예연구소 ‘불교의례’ 춘계대회

4월 24일 동방문화대학원대학 호운관서

불교의례와 수륙재의 사상적 특징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동방문화대학원대학 불교문예연구소는 4월 24일 오후 1시 10분 교내 호운관에서 ‘불교의례, 수륙재의 사상적 특징’을 주제로 춘계학술대회를 연다.

조계종 어산학교장 법안 스님의 ‘의례와 종교의 상관성과 그 의의’ 주제의 기조강연으로 시작을 알리는 학술대회에서는 수륙재에서 확인되는 천태·선사상 등을 살펴보는 연구논문들이 발표된다.

이성운 동방대학원대학 교수는 ‘지반의 수륙재의문에 나타난 천태사상’을, 동방대학원대학 교수 명조 스님은 ‘〈법계성범수륙승회수재의궤〉와 선사상’을, 심일종 서울대 교수는 ‘조선전기 유교와 수륙의문의 영향관계-〈법계성범수륙승회수재의궤〉의 사례를 중심으로’를, 손인애 서울대 교수는 ‘〈법계성범수륙승회수재의궤〉와 불교음악’를 각각 발표한다.

토론자로는 지혜경(연세대)·오용석(원광대)·민순이(서울대)·윤소희(동국대) 교수가 참여한다. 신중일 기자

중국 아미산,낙산대불,대족석굴 5일
보현보살의 도량 아미산과 낙산대불,
중국 4대석굴중에 하나인 대족석굴 순례
6월10일 출발~14일 도착
▶ 동참금 : 149만원

중국 문수보살의 성지 오대산 성지순례 5일
1,500년전에 조성된 운강석굴과
문수보살의 화현처 오대산 순례
6월07일 출발~6월11일 도착
▶ 동참금 : 159만원

오대산과 조주,임제선사 7일
운강석굴과 문수보살의 성지
오대산과 조주, 임제선사 순례
출발일 : 5월 27일 출발~6월 2일 도착
▶ 동참금 : 189만원

중국 실크로드 성지순례 10일
삼장법사 현장스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최고의 순례 길
6월04일 출발~6월13일 도착
■ 일정: 인천-서안(진시황병마용갱,화청지)-법문사(부처님불지사리)-천수(맥적산석굴)-난주(병령사석굴)-장액(대불사)-칠채산(일곱빛깔 무지개산)-가욕관·돈황(막고굴,명사산)-유원-투루판-우루무치(천산천지)-인천
▶ 동참금 : 349만원

인도네시아 보로부두르 대탑 5일
보로부두르 대탑은 세계최대의 불탑으로 462개의 벽면에
부처님의 생애가 조성되어 있으며 화엄경에서 선재동자가
54선지식을 찾아가는 내용도 조성한 화엄경의 성지입니다.
6월18일 출발~6월22일 도착(5일간)
▶ 동참금 : 문의

인도 히말라야 라다크 순례 8일
고색창연한 티베트 사원들과 천년벽화의 신비 알치곰파
그리고 유명한 헤미스사원 축제
6월21일 출발~6월28일 도착
■ 일정: 델리-라다크(레)-알치-라마유루-레-헤미스-판공호수-레-델리
▶ 동참금 : 369만원

티베트 순례 칭짱열차 8일
라싸-갼체-시가체-삼예-칭짱열차-서녕-서안 등
티베트 주요 성지순례 일정입니다.
6월06일 출발~6월13일 도착
▶ 동참금 : 문의

우주의 중심-
티베트 수미산 순례 16일
부처님의 탄생과 같은 말띠 해인 2026년도는
12년 만에 찾아오는 성스러운 수미산 순례의 기회입니다.
6월16일 출발~7월01일 도착
▶ 동참금 : 570만원

인도,네팔 불교성지순례 9일
10월02일 출발~10일 도착
■ 일정: 인천-델리-바라나시-보드가야-영축산-바이샬리-쿠시나가르-룸비니-기원정사-아그라-델리-인천
▶ 동참금 : 279만원

인도 관광여행 9일
10월02일 출발~10일 도착
■ 일정: 인천-델리-바라나시-카주라호-잔시고성-아그라-자이푸르-델리-인천
▶ 동참금 : 문의

백두산, 고구려유적 순례 5일
6월25일 출발~6월29일 도착
■ 일정: 인천-연길-백두산 천지(북파,서파 2곳 등정)-집안(고구려 옛수도-광개토대왕비)-심양-인천
▶ 동참금 : 159만원

예약 · 상담 02)720-9600
마음여행 실크로드여행사
서울시 종로구 우정국로 48, 에스앤에스빌딩 901호
마음여행사 검색